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에 깃든 사연

국장은 해당 국가의 사명을 체현하고있는 공식적인 표식이다. 국장에 형상되는 그림 하나하나에는 그 나라의 모습과 지향이 반영된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국장의 선 하나, 점 하나를 두고도 세심히 마음쓰시였다.

당시 국가의 요직에 틀고앉아있던 한 종파분자는 미술가를 불러다놓고 국장의 모양과 테두리를 동그랗게 만들라, 국장에 벼이삭테두리를 넣지 말라고 강요하였다. 지어 국장가운데 경복궁을 그려넣으라고 터무니없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이 사실을 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것을 단호히 부정하시면서 공화국국장에 해방된 조선에 일떠서게 될 부강번영하는 새 나라의 모습을 반영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얼마후에는 장차 우리 나라가 세계적으로 발전된 부강하고 문명한 나라로 전변될 휘황한 전망을 보여주자면 국장에 우리 조국의 전기화문제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에는 인민들의 귀중한 로력이 깃든 세계굴지의 수력발전소가 있는데 그런것을 잘 그리면 나라의 전기화전망을 직관적으로 표현할수 있을것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그후 완성된 국장도면을 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국장이 나라이름과 같이 밝고 아름답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 국장은 세계에 내놓아도 빛날수 있다고, 자랑할만하다고 크나큰 긍지에 넘쳐 절절히 말씀하시였다.